

현대디지털엔터테인먼트 '시티레이서 온라인'

무한질주로 여름 더위 싹~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이다. 찌는 듯한 여름밤을 달랠 수 있는 게임으로는 '레이싱게임'이 제격이다. 실제 자동차 경주를 방불케 하는 조작감과 화려한 그래픽, 터질듯한 엔진의 굉음과 격렬한 메탈음악을 들으면서 새벽의 거리를 질주하면 무더위가 싹 가실 듯하다.

글 / 신승철 기자

지난 96년 발표된 이후 8년간 장수하고 있는 PC 레이싱게임의 대표주자 니드포스피드(Need for Speed · NFS) 시리즈, 그리고 지난 97년 첫 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전세계에서 3,20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플레이스테이션용 레이싱게임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랑투리스모(Grand Turismo) 시리즈 등 레이싱게임은 두터운 마니아층을 기반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백명이 하나의 맵에서 배틀, 퀘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레이싱게임까지 선보이고 있어 게이머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혼자서 즐기는 사실적인 경주보다 수백명의 경쟁자와 어울리는 경쟁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국산 온라인 레이싱게임이 적당하다. 현대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시티레이서 온라인'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의 3D MMO 레이싱게임

지금까지 레이싱게임은 4~8명의 유저들이 방을 만들어 출발선에서 시작해 단일트랙을 돌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였다. 그러나 시티레이서에서는 적개는 수십명, 많게는 5,000명(한 서버당)이 동시에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콘솔이나 아케이드의 레이싱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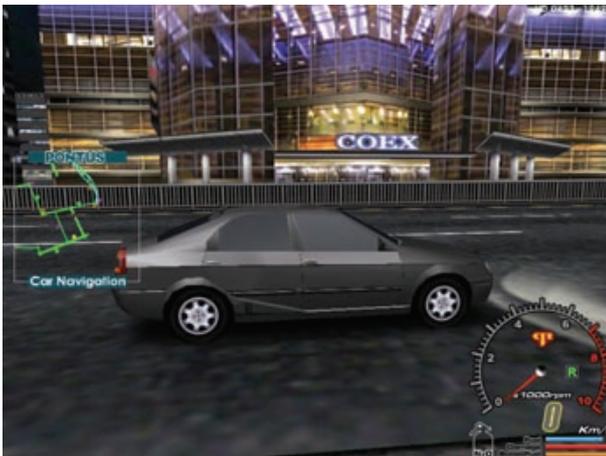
또한 시티레이서는 RPG의 게임방식을 도입했다. 자신의 캐릭터로 차량이 등장하고 배틀과 퀘스트 등을 통해 CT머니(사이버 머니)를 획득, 아이템을 구입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킨다. 기름을 주유하고 보험을 드는 등 자신의 캐릭터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시티레이서에 등장하는 차량은 모두 국내에서 시판되는 차량의 디자인을 본떠 제작했다. 현재 게이머가 선택할 수 있는 18종의 차량 이외에 주기적인 차량 추가를 통해 총 40여 가지의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저들은 최대 5대까지 소유할 수 있고 CT머니로 차를 구입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택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차량 별로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픈 테스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70~80년대를 풍미한 올드카(PNY-X)를 추가해 유저들은 다양한 차량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시티레이서 온라인의 차량은 현재 B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로 나뉘지며 총 22종의 차량이 있다.

또 기존의 레이싱게임이 단순 트랙형태로 이뤄져 있다면, 시티레이서는 실제 시내의 도로의 실측을 통해 맵을 구현했다. 그물형 맵의 도로로 이뤄져 있어 레이싱게임으로는 드물게 자유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시간적인 배경은 새벽 1시~4시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A섹션인 강북맵은 광화문, 종로, 동대문일대를 잇는 60km의 도로다. 시내를 달리다 보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세종문화회관, 청와대, 동대문, 남산타워 등 낮익은 건물이 등장하고 실제와 같은 도로 곳곳



▲ 시티레이서에는 낮익은 지형이 등장한다. 코엑스 옆을 질주하고 있는 장면.

의 교통 표지판들을 보면서 게이머들은 실제 서울시내를 달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B섹션인 강남은 최근 더욱 확장돼 64.554km의 길이로 늘어났다. 강남역, 서초구, 압구정 일대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 테헤란로를 거쳐 양재천 사이에 있는 주요도로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만남의 광장, 양재 꽃시장, 타워팰리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 매봉터널, 서초구청 등 주요건물도 추가될 예정이다.

배틀과 퀘스트 통해 CT머니 얻기

시티레이서는 배틀과 퀘스트를 통해 CT머니를 모을 수 있다. 배틀은 현재 주어진 서울 필드상에서 게이머가 자유롭게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게이머를 만나 즉석에서 배틀을 신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배틀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의 레이싱이 펼쳐지며 배팅시스템에 의해 유저가 갖고 있는 CT머니를 걸고 배틀이 이뤄진다. 레이싱에서 승리하면 배팅된 CT머니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퀘스트는 게임내 싱글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입된 로드러너(Road Runner)와 로드러너헌터(Road Runner Hunter)는 새로운 개념의 퀘스트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게이머를 제압해야만 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띤다. 로드러너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며 로드러너헌터는 로드러너를 추적해 체포해야 한다. 이 퀘스트는 게이머들로 하여금 도망가고 추적하게 해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챔피언십은 시티레이서의 메인 게임방식인 MMO 레이싱 게임방식과 다르게 1~16명이 방을 만들어 트랙을 돌며 순위를 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 게임방식 중 배틀의 성격을 극대화 시켰다. 챔피언십 맵은 다운타운, 다운타운 R, 분당썬릿, 분당썬릿R, 남산시즌트랙이 있고, 영화 '폭풍의 질주'에 등장하는 코스인 '스피드웨이' 맵도 있어 다양한 맵에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스피드웨이는 주행테스트 시험장과 유사한 형식의 타원형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다운타운 맵과 분당썬릿 맵에 별도로 눈길 맵을 추가해 눈맵과 그냥 일반 맵을 같이 달릴 수도 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눈길에서 함박눈을 맞으며 시티레이서 유저들은 색다른 레이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눈이 내리는 동안은 시야가 가려져 속도가 느

려질 수 있다는 것과 또 미끄러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색다른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모미다.

메인필드(강북, 강남 맵)에는 비, 안개 효과도 추가됐다. 특이한 것은 실제로 비가 내릴 때만 시티레이서 내에서 비, 안개 효과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바깥의 날씨를 오히려 게임에서 먼저 알 수도 있게 된다. 비가 오고 안개가 짙게 끼면 시야가 좁아져 능숙한 게이머라도 주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옆차가 지나갈 경우 스파크 현상이나 물보라가 일어나기도 한다.

게임배경에 흐르는 강한 비트의 음악은 유저들의 질주 본능을 자극한다. 게임 중에 흐르는 역동적인 음악은 93년에 결성된 헤비메탈그룹 마하트마의 연주다. Actual Fight, Fantasy of Fishing, Push Pang Pang 등 아케이드게임의 음악을 녹음한 402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 또한 유저들은 나만의 앨범을 만들어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할 수 있다. MP3 앨범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게이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 레이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내 차는 내가 꾸민다 : 튜닝 및 장식

도로의 수많은 차량들 중에서 자신의 차를 눈에 띄게 하고 싶다면 나만의 색상과 튜닝으로 차별화 해 보자. 시티레이서에서는 R(Red), G(Green), B(Blue) 색상을 각각 256컬러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차체와 범퍼부분을 분리시켜 색상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튜닝을 통해서 차량의 성능과 외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엔진, 타이어, 서스펜션 등의 아이템을 통해서 파워를 높일 수도 있고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윙, 휠 등을 통해 외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차량 한대에 50여개의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다.



▲ 유저들이 폭주를 위해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 있다.

최근에는 '전용 부품'의 개념을 도입해 차종, 클래스에 따른 세부적인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데칼&스티커 시스템은 자신의 아바타에 옷을 입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차량의 바디를 도색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최근에는 언더네온을 추가해 유저들이 자신의 차량을 더욱 화려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

투어링은 유저들에게 일명 폭주로 통한다. 예를 들어 "폭주하실 분 10분 후에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이세요"라는 공지가 채팅창에 뜬다. 그러면 10분 뒤에 이순신 동상 앞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차량이 수십대가 모이게 된다. 그 중 리더는 게이머들의 의견을 모아 코스를 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출발한다. 나름대로의 규칙도 정해진다. '투어링 중 리더를 앞지르지 않는다' 라거나 '시속 120km를 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것이다. 유저들이 몰리는 저녁시간에는 한 맵에서 여러 팀이 서울시내를 투어링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명소 드라이브는 여성유저들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높다. 상금을 벌 수 있는 배틀이나 퀘스트와는 상관없이 이순신 동상, 밀리오레, 남대문, 남산타워, 세종문화회관, 코엑스, 고속터미널 등 서울 곳곳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드라이브를 즐긴다. 꼭 막힌 실제의 서울시내와 달리 시티레이서에서의 드라이브는 새벽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상쾌함마저 준다. 실제로 드라이브 후 이순신동상 앞에 차를 세워두고 채팅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저가 등장해 운영자들을 미소짓게 했다.

시티레이서는 RPG에서의 레벨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인 '명성'과 '닉네임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이는 게이머



▲ 하루나(HARUNA)는 본격적인 고갯길 드라이브를 맛 볼 수 있으며, 5분 가량의 공략 시간이 걸린다.



▲ 우스이 코스는 공략이 다소 어렵다. 주변의 비교적 넓은 갓길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들이 일정 닉네임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또한 게임 내에서 각종 미션을 부여받은 게이머들은 각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해당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미션을 완성한 게이머들은 스페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스페셜 아이템은 CT머니, CT캐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에 도달한 유저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레어 아이템이다. 또한 '1차 라이선스 시스템'은 기존의 퀘스트와는 달리 일정한 성공/실패의 조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로그아웃 한 후 재접속을 해도 계속 퀘스트가 진행이 되는 지속성 퀘스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시티레이서는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즐기는 온라인게임인 만큼 유저들간의 커뮤니티 형성은 게임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다. 유저들간의 풍부한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개발사는 길드 시스템과 카페를 게임 내에서 지원한다. 길드는 자기들만의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다. 길드에는 일반 명성치가 있으며 길드원들의 활동에 따라 명성치가 늘거나 줄어든다. 상위랭크의 길드에는 특수 아이템이나 특별 포인트, 랭킹 등록, 명예의 전당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게임명 : 시티레이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 www.ctracer.net

제작사 : 엔트리브소프트

유통사 : 현대디지털엔터테인먼트

권장사양 : 펜티엄3 800Mhz 이상, 256RAM 이상, 지포스2MX급의 그래픽카드, Direct X8.0 이상